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THE SECOND LIFE OF NICK MASON

가제 : 닉 메이슨의 두 번째 인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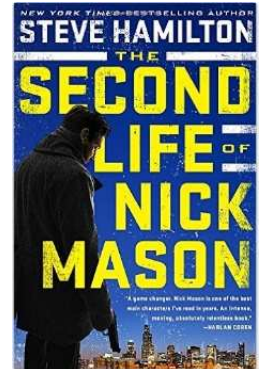
저자 : Steve Hamilton

출판사: G.P. Putnam's Sons

발행일: 2016년 5월 17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소설/ 스릴러



* 독일, 일본, 네덜란드 판권계약 체결

* 「커커스 리뷰」, **NPR** 선정 '**2016** 최고의 도서', 「라이브러리 저널」 '**2016** 올해 최고의 스릴러 소설'

* “세밀한 전제와 생생한 배경, 영웅과는 거리가 멀지만 카리스마 넘치는 주인공... 지나긴 고난 끝에 필사적으로 자신을 새로 만들어내려는 한 남자의 긴박하고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 - 「뉴욕타임스」

타고난 악인도 있지만 어쩌다 악한이 되는 불운한 사람도 있다. 큰 악의 없이 저지른 일들이 후회를 낳고, 다시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잘못된 선택이 거듭되면서 점점 더 수습하기 힘든 상황에 빠진다. 시카고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난 닉 메이슨은 어릴 때부터 친구들과 몰려다니며 자질구레한 범죄를 저지르고 다녔지만, 그 역시 사랑하는 아내가 생기고 아이까지 생긴 뒤에는 올바른 사람이 되리라 다짐했다. 젊고, 열정도 있고, 지켜야 할 사람들도 생긴 닉에게 남은 인생은 행복만 가득할 줄 알았건만, 그가 선택한 ‘마지막 한 건’은 그 창창했던 삶을 완전히 뒤집어놓았다. 닉은 두 친구와 함께 크게 한 건 훔쳐서 목돈을 챙기고 손을 툰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절도는 연방 마약단속국 요원이 목숨을 잃고 목숨만큼 소중하게 생각한 친구까지 죽는 살인사건으로 바뀌고 말았다. 경찰에 붙잡힌 닉은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썼다. 다른 친구를 밀고 할 수 없었기에 입을 다물어버린 그는 징역 25년 형을 선고 받고, 가장 사악한 범죄자들이 모인 소굴이자 연방교도소 중에서도 경비가 가장 삼엄하기로 악명 높은 애리조나 주 교도소 철창에 갇힌 신세가 된다. 아내도, 아이도, 부풀었던 미래도 다 사라져버린 닉은 아직 어린 딸이 너무 커서 자신을 기억도 못하게 되는 날이 오기 전에, 어떻게든 밖에 나가서 가족과 재회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낸다. 그렇게 5년의 세월이 지난 어느 날, 그에게 또 다시 예상치 못한 운명이 찾아온다. 데리우스 콜이라는, 같은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가 닉에게 접근한 것이다.

시카고에서 가장 교활한 악당으로 알려진 데리우스는 닉에게서 '가능성'을 발견했다. 험난한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도 철저히 자기관리를 할 줄 아는 통제력과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닉의 모습은 바로 데리우스에게 꼭 필요한 '인재'의 모습이였다. 몸은 갇혀 있지만 원하는 건 뭐든 다 쥐락펴락하는 권세는 전혀 녹슬지 않은 데리우스는 닉에게 놀라운 제안을 한다. 자기 밑에 들어와서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약속한다면, 20년이나 남은 징역을 모두 없애주겠다는 것이다. 가족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절실했던 닉은 데리우스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어떤 일인지도 모른 채, 그리고 약속된 자유가 정말 자유가 맞는지 미처 예상하지도 못한 채 그는 또 다시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만다. 데리우스라는 악마와의 계약은 그렇게 성립됐다. 연방법까지 마음대로 주무르며 범죄자의 형기까지 바꿀 줄 아는 데리우스의 엄청난 영향력이 자신에게 자유 대신 어떤 대가를 바랄지, 그때 더 깊이 고민했어야 했다.

감옥 밖으로 나간 닉에게는 영화 같은 인생이 기다리고 있었다. 화려하고 거대한 저택에 최고급 옷들로 가득 채워진 옷장, 스포츠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 아름다운 '룸메이트'까지 오직 닉을 위해 마련되어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 데리우스의 동업자가 건넨 휴대전화가 닉에게 전달됐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언제나 전화벨이 울리면 무조건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은 전화기였다.

지시를 기다리는 동안 닉은 서둘러 아내와 딸을 찾아가지만 아내는 이미 재혼을 한 상태였고, 그가 끔찍한 감옥 생활을 견딜 수밖에 없었던 친구와의 의리마저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버렸다는 비참한 현실과 마주한다. 급기야 첫 번째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하고, 닉에게는 사람 하나를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진다. 태어나 한 번도 살인을 해본 적이 없는 닉은 선택의 여지 없이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고 나중에는 자신이 죽인 사람이 경찰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더 위험하고 감당할 수 없는 지시가 줄을 잇고, 닉은 도망치고 싶지만 지시를 그대로 따르지 않을 경우 딸의 목숨이 위험해지는 오도가도 못하는 지경에 이른다. 화려한 인생, 그 뒤에서 악마의 꼭두각시가 되어버린 닉은 살아날 구멍을 찾기 시작한다.

닉을 주인공으로 한 시리즈의 첫 번째로, 2권 『탈출 전략(Exit Strategy)』이 올해 5월 출간될 예정이다.

<저자 소개>

스티브 해밀턴(Steve Hamilton)은 1999년에 발표한 데뷔소설 『A Cold Day In Paradise』로 '에드거상(Edgar Award)'과 '셰이머스상(Shamus Award)'을 수상하며 스릴러 작가로 주목 받기 시작했다. 국내에도 번역된 『록 아티스트(The Rock Artist)』로 에드거 상을 두 번째로 수상하고 뉴욕 타임스 선정 '주목할만한 범죄 소설'에 선정됐다.

제목 : THE ZOO

가제 : 동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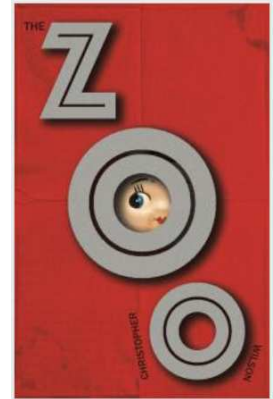
저자 : Christopher Wilson

출판사: Faber & Faber

발행일: 2017년 7월 6일

분량 : 240 페이지

장르 : 소설/ 스릴러



- * “작가의 상상력에 담긴 에너지와 독창성이 큰 충격을 안겨주는 매력적인 소설. 화자와 중심인물들의 흡입력이 대단해서 책을 놓을 수가 없다.” - 소설가 다이애나 애실(*Diana Athill*)
- * “현실과 초현실의 경계를 끊임없이 오가며, 바보 같은 아이와 명석한 지식인이 역사와 신화를 엮어내는 이야기는 독창적이고 신선하며 신랄하면서도 순수하고 재미있으면서 끔찍하다.” - 소설 *「The Good Liar」*의 작가 니콜라스 설(*Nicholas Searle*)

사람들이 바보라고 생각하는 아이, 하지만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아무 거짓없이 이야기 할 뿐인 순수한 아이 유리는 ‘손가락 아홉 개짜리’, ‘고해 신부’, ‘죽지 않는 아이’라는 특별한 별명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 이제 겨우 열두 살인 유리에게 그런 이상한 별명이 붙여진 건 여섯 살 때 당한 엄청난 사고 때문이다. 길을 건너다가 우유 배달 트럭이 뒤에서 들이 받는 바람에 공중에 붕 떠올랐다가 머리부터 바닥에 떨어진데다,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트램이 바닥에 쓰러진 유리를 깔고 지나갔다. 그러나 어린 유리는 기적처럼 살아남았다. 그러나 머릿속에 사고 당시의 장면이 선명하게 남아 있고, 여러 가지 후유증이 남았다. 팔 하나는 완전히 퍼지지 않아 피아노를 칠 때도 한쪽 손으로만 쳐야 하고 다리를 절어서 학교에서 축구를 할 때도 구석에서 공이나 주워오는 역할밖에 주어지지 않았다. 수시로 어지럽고, 잘 넘어지고, 행동이나 생각하는 것이 느려질 때도 많았다. 반대로 생각나는 모든 것을, 입에 모터라도 달린 것처럼 마구 쏟아내기도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유리의 가장 큰 특징은 ‘표정’이다. 살짝 미소 짓는 입 모양에 순진무구한 눈동자, 어딘가 밝고 친근한 얼굴 모습은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도 속에 있는 고민이나 끔찍 숨겨온 자신의 본 모습을 다 털어놓게 만드는 신비한 힘이 있었다. 길을 지나던 술주정뱅이도 유리의 얼굴과 마주하면 ‘난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술꾼이야.’라고 웅얼거리고, 말쑥하게 차려 입은 회사원 아저씨는 ‘지난 주에 아내 몰래 바람을 피웠어.’라고 털어놓는 식이었다.

아빠는 이게 다 사고 때문에 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부작용이라고 유리에게 설명해주면서 실제 마음보다 얼굴에 그렇게 과장된 친절함을 드러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다. 하지만 유리는 죄와 벌에 나오는 라스콜리니코프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어딘가에 속마음을 털어 놓고 이해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자신은 살아남는 대신 그 말을 들어 주는 역할을 부여 받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 특별한 아이 앞에 엄청난 존재가 나타난다. 때는 1950년대, 유리가 사는 나라는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와 조국보다 가족을 더 많이 아끼고 사랑하는 건 범죄라고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그곳에서 신으로 여겨지는 존재, 국가원수를 눈 앞에서 보게 된 것이다.

유리의 아빠는 유명한 수의사였다. 논문도 많이 발표하고, 아픈 동물들을 돌보는 솜씨가 워낙 뛰어나서 국립 동물원의 수의사로 일하고 있다. 엄마는 의사였는데 유리가 그 끔찍한 사고를 당하기도 전에 어딘가로 가버렸다. 아빠는 엄마가 북쪽 어딘가에서 중요한 일을 하느라 집에 못 오고 있지만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유리는 학교 친구에게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엄마가 나라에서 금지한 일을 하다가 들켜서 강제노역을 하러 잡혀갔다는 것이다. 유리는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지만, 나라가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진 곳인지는 어렵פות이 느낄 수 있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유리와 아빠의 눈 앞에 이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떡하니 나타난 것이다. 그것도 죽어가는 환자의 모습으로...

자신의 병이 세상에 드러나서 권력이 붕괴될 수 있다는 염려에 극히 보안에 예민해진 스탈린은 의사가 아닌 수의사를 자신을 치료할 전문가로 선택한다. 유리의 아빠는 그렇게 느닷없이 집을 떠나게 됐지만 정상이 아닌 아이를 절대 떼놓고 갈 수 없다고 고집을 부린 덕분에 유리를 데리고 갈 수 있었다. 그리하여 유리는 학교 친구들이나 선생님은 상상도 못할 국가지도자의 면면은 물론 화려하고 거대한 궁전 안에서 벌어지는 험악한 정치판의 실상을 순진무구한 눈으로 모두 목격한다. 대통령이라는 호칭 대신 암호처럼 ‘코끼리’라 불리게 된 스탈린, 그 ‘코끼리’를 치료하는 아빠, 식사 때마다 상다리가 휘어져라 쏟아져 나오는 산해진미, 자기 아이를 잡아먹은 잔인한 사람으로 알려진 장군의 실체까지 유리는 흥미진진한 일들과 더불어 남의 등에 쉽사리 칼을 꽂는 배신의 현장과 대역 배우를 동원하는 지저분한 속임수의 내막 등 정치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이상한 일들도 모두 똑똑히 지켜보며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낱알이, 가감 없이 그대로 전한다.

모두가 바보라고 여기지만 알고 보면 제 정신인 사람은 유리 하나뿐인 공산주의 국가의 우스꽝스러운 실체를 날카로운 풍자로 담아낸 소설이다.

<저자 소개>

크리스토퍼 윌슨(Christopher Wilson)은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에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런던 정치경제대학교에서 심리학 박사를 취득한 후 런던 대학교에서 10년간 학생들을 가르쳤다. 이후 교도소와 대학교 등에서 글쓰기를 가르치고 있다. 소설 『Gallimauf's Gospel』, 『Baa』, 『Blueglass』, 『Mischief』, 『Fou』, 『The Wurd』 등을 발표했으며 여러 작품이 해외에 번역되고 연극으로 각색됐다. 부커 상(Booker Prize) 후보에 한 차례, 화이트브레드 소설 상(Whitbread Fiction Prize) 결선 후보에 두 차례 올랐다.

제목 : AN ORDINARY DAY

가제 : 어느 평범한 날

저자 : Filippo Venturi

출판사: Pendragon

발행일: 2015년 5월(이탈리아어 원서)

분량 : 221 페이지

장르 : 소설/ 스릴러



*** 2014년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개최된 실제 전시회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팽팽한 추격전**

*** 악의와 계획이 없는 도둑, 위선과 포장에 찌든 국가권력이 던지는 선과 악의 진짜 의미**

2014년 8월, 이탈리아 볼로냐에서는 “황금시대의 신화”라는 제목으로 대규모 미술 전시회가 개최됐다. 렘브란트, 파란스 할드 등 네덜란드 황금시대를 대표하는 화가들의 명화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었던 이 행사의 전시작품에는 요하네스 베르메르의 그 유명한 작품,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도 포함되어 있었다. 4개월 남짓 이어진 전시회는 이탈리아 전역에서 시민들이 몰려올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무사히 완료됐지만, 작가는 누구나 한 번쯤 할 법한 재미 있는 상상을 구체적으로 풀어 넣어 박진감 넘치는 소설로 완성했다. 거대한 전시회장을 채운 이 세계적인 명화 중에 혹시 가짜가 있다면? 도난이 우려되어 일부러 가짜를 걸어 놓은 것이 아니라, 진짜 도둑 맞았는데 관리가 소홀했다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고 도난 사실을 공공 숨긴 채 모조품을 내세운 것이라면? 그리고 뒤에서는 도둑을 잡기 위해 경찰이며 공무원들이 눈에 불을 켜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면? 이 흥미로운 전제를 바탕으로, 좀도둑으로 아슬아슬한 삶을 이어가던 마르티노와 이 순진무구한 도둑의 뒤를 쫓는 교활한 권력가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자동차 부품을 몰래 훔쳐서 팔아 남기는 좀도둑 마르티노는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이 손버릇 때문에 감옥에도 여러 번 다녀왔다.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마르티노에게는 별로 다를 것 없었던 그 날도 자동차 휠 네 개를 빼내는 데 성공한 마르티노는 작업이 다 끝났다고 안심한 순간, 경찰 눈에 걸려들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답답한 교도소 생활은 떠올리기만 해도 진저리가 나는데, 이대로 붙잡힐 수는 없다고 굳게 마음 먹은 마르티노는 길에서 훔친 자전거를 타고 체인이 다 부숴져라 페달을 밟았다. 맹렬히 추격하는 경찰을 겨우 따돌리느라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 근육이 터져버릴 것 같은 상태가 된 그는 잠시 숨을 돌리려고 거대한 건물의 정문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선다. 거기가 어딘지 찾아볼 겨를도 없었다. 그저 사방이 막히고 조용한 곳을 찾아 들어왔을 뿐인데, 우연히 현관문이 열려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고 나서야, 마르티노는 이곳이 전시회장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벽면에는 서른 점 정도 되는 그림들이 걸려 있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쿵광대는 심장을 가라앉히며 이리저리 둘러보던 마르티노는 오직 그림 하나만 걸려 있는 꽤 넓은 방안에 들어선다. 어딘가 익숙한 얼굴, 자신을 뚫어져라 바라보는 소녀가 담긴 그림이었다. 보자마자 그 소녀의 묘한 분위기와 자신을 응시하는 눈길에 온 마음을 빼앗겨버린 마르티노는 더 길게 생각하지도 않고

일단 그 그림을 가져가기로 마음 먹는다. 그렇게 세계적인 명화,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는 철저한 사전 계획이나 치밀한 건물 설계도 같은 건 아예 생각하지도 않았던 좀도둑의 손에 들려, 그림을 벽에서 떼어내도 경보 하나 울리지 않는 허술한 보안시스템을 유유히 벗어나 마르티노의 이케아 쇼 핑백에 담긴 채 사라지고 말았다.

베르메르의 명작이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된 경찰국장 페트렐라는 귀중한 예술품이 사라진 것보다 이 희대의 사건으로 자신과 볼로냐, 크게는 이탈리아의 명예가 바닥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생각에 공포에 가까운 두려움을 느낀다. 결국 그는 이 사실을 비밀에 부치기로 하고, 전시회가 무사히 이어질 수 있도록 모조품을 걸기로 한다.

그림에 대한 지식이나 예술에 대한 안목이라곤 전혀 없는 마르티노가 그 그림을 움켜진 이유는 단 하나, 자신에게 말을 거는 듯한 소녀의 얼굴과 무엇이든 다 털어놓게 만드는 그림의 힘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그림을 팔아서 한 몫 챙기려는 의도도 없었다. 작품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사랑으로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벌인지도 모르는 마르티노는 시민의 안전이나 공익을 챙기기보다 교활한 술수에 능하고 자신의 안위를 먼저 계산하는 비열한 경찰국장 페트렐라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도둑을 잡는다는 이유로 ‘합법’의 모호한 경계를 넘나드는 공권력의 무자비한 계획은 점점 마르티노를 향한 포위망을 좁혀오고, 마흔을 넘길 때까지 늘 괴로운 삶을 연명해온 마르티노는 아름다운 그림을 보면서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는 또 다른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다.

빠른 전개, 거둬드는 반전, 예상치 못한 결말이 시종일관 흥미를 잡아 끄는 매력적인 소설이다.

<저자 소개>

필리포 벤투리(Filippo Venturi)는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다가 2010년 단편소설 『Intanto Dustin Hoffman non fa più un film』를 발표하고 2012년 첫 장편소설 『Forse in paradiso incontro John Belushi』를 발표했다.

제목 : NEED TO KNOW

가제 : 알아야만 하는 것

저자 : Karen Cleveland

출판사: -

발행일: -

분량 : 80,000 words

장르 : 소설/ 심리스릴러



- * 실제 **CIA** 분석전문가 출신 작가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국가적 음모에 관한 스릴러 소설
- * 존 제이크스(**John Jakes**)의 『**The Americans**』, 크리스 파본(**Chris Pavone**)의 소설 『**The Expats**』과 길리언 플린의 『나를 찾아줘』의 느낌이 살아 있는 흥미진진한 전개
- * 워싱턴과 러시아를 넘나들며 평온한 결혼생활과 국가 안보를 모두 뒤흔든 은밀한 작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오늘 처음 만난 사람마냥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 온 몸을 때리는 충격은 어지간한 공포영화 속 귀신이 던지는 충격과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나다. 미처 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덮친 충격이라는 점은 동일하지만, 귀신과 달리 그 놀라움을 안겨준 대상이 인생에 큰 부분을 함께 나눈 존재이기 때문이다. 비비안은 루크, 엘라, 그리고 두 쌍둥이 칼럼과 체이스까지 사랑스러운 네 아이를 함께 낳고, 함께 키우며 십 년 넘게 함께 살아온 남편 매트에게서 바로 그런 충격을 받고 말았다. CIA 분석가로 일하느라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처음 아장아장 걷는 모습도 직접 보지 못한 채 놀이방에 떼어놓고 무거운 죄책감을 짊어지고도 비비안이 계속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매트가 한없이 좋은 남편이었기 때문이다. 처음 만난 순간부터 비비안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 자상한 미소는 오랜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라 비비안보다는 시간을 유연하게 쓸 수 있어서 아이들을 학교 버스에 태워 보내고, 놀이방에 데려다 주고 또 데리고 오고, 밥을 챙겨주고 정기검진에 데려가는 일 모두 매트의 몫이었다. 매트는 큰 불만 없이 그 모든 일을 묵묵히 해냈고 덕분에 비비안은 벌써 수년째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CIA 작전에 매진할 수 있었다. 이제 몇 달만 더 참으면 막내 쌍둥이가 가장 어린 연령대 아이들만 모아둔 탁아소에서 유아 놀이방으로 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집안 살림도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으로 비비안은 집안 일을 매트에게 맡기는 죄책감을 달래며 하루하루 버텨나갔다. 하지만 둘째 딸 엘라가 유치원에서 아프다는 연락에 어쩔 수 없이 퇴근을 해야 했던 그 날, 비비안은 보지 말았어야 할 사진 한 장을 보고 만다. 오랫동안 쫓고 있던 러시아 스파이의 개인 컴퓨터 폴더 안에서, 절대 그 속에 들어 있지 말아야 할 얼굴이 나온 것이다. 남편 매튜였다.

미국에 건너와 누가 봐도 평범한 시민처럼 살아가다가 미국 정부기관에 직원으로 입사하고 고위직까지 올라가서 중요한 국가 정보를 빼돌리는 스파이, 일명 '슬리퍼'라 불리는 간첩들이 비비안과 같은 팀 동료들이 쫓는 대상이었다. 특히 러시아 간첩이 비비안의 팀이 전담하는 대상이

있고, 이들은 슬리퍼가 ‘핸들러’라 불리는 중간 관리자들에게 철저히 감시를 받으며 첩보 활동을 벌이고 핸들러는 자신이 관리하는 슬리퍼가 빼돌린 기밀 정보를 모아 다시 상부로 보내는 치밀한 구조로 활동한다는 사실까지 알아냈다.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부은 조사 끝에 비비안은 유리 야코프라는 핸들러를 찾아냈고 CIA 해킹 프로그램으로 그의 컴퓨터를 해킹하는 데 성공한다. 학력도, 여행 기록도, 은행 거래내역도 모두 가짜인 위장술의 천재들, 슬리퍼의 실체를 벗겨 내려면 핸들러가 그들에게 받은 정보가 무엇인지, 또 그 정보를 어디로 보냈는지 알아내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했다. 비비안은 유리 야코프의 컴퓨터에 처음 진입하자마자 암호화된 파일부터 찾기 시작했다. 그런데 ‘친구들’이라고 적힌 폴더 하나가 바탕화면에 딱 하니 생성되어 있고, 이상하게 비비안의 신경을 건드렸다. 폴더 안에는 다섯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 지금까지 알려진 대로라면, 그리고 유리 야코프란 자가 핸들러가 맞다면 이 ‘친구’라는 사람들은 그가 관리하는 슬리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보란 듯이 바탕화면에 놔둔 이유가 없을 텐데? 비비안은 의아해하면서 사진을 하나하나 클릭한다. 그런데 세 번째 사진에서, 남편 매트를 발견한 것이다. 그것도 1년이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최근 모습이었다.

소스라치게 놀란 비비안은 온종일 혼란스러운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다 결국 그날 저녁, 매트에게 바로 진실을 요구하기로 결심한다. 유리 야코프의 ‘친구’가 아니라면 러시아에서 노리는 표적이라는 뜻인데, 자신이 CIA 분석가라는 이유로 남편이 암살 타깃이 되었다면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더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그러나 언제부터 러시아와 함께 일했냐고 대뜸 물어본 비비안의 질문에, 매트는 크게 동요하지도 않는 얼굴로 답한다. “22년 전부터.”

매트가 태어난 고향, 부모님, 어린 시절 이야기는 모두 거짓이었다. 비비안에게 말했던 것과 달리 그는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고아원에서 자라다 열다섯 살부터 러시아 정부에게 채용되어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간첩 활동에 참여했다. 그는 비비안에게 그 외에 결혼생활이나 아이들에 대한 사랑은 한 점 부끄럼 없이 모두 진심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디까지가 진실일까? 비비안은 매트가 보인 의외의 반응과 스스럼 없는 실토에 더 혼란스러워지고, 매트의 실체와 그간 해온 일들이 드러나면서 사태는 점점 더 꼬여간다.

실제 CIA 분석가로 일했던 작가는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국가적 작전의 전개 방식과 세세한 부분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예측할 수 없는 결말을 향해 빠른 속도로 이어지며 끊임없이 호기심을 자극하는 흡입력 있는 스릴러 소설이다.

<저자 소개>

카렌 클리브랜드(Karen Cleveland)는 더블린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국제 평화를 전공하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공공정책을 공부했다. 최근까지 약 8년간 미국 중앙정보부(CIA) 분석가로 근무하면서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계 주요 인사의 브리핑 자료를 작성했다. 업무 능력을 인정 받아 10여 가지의 상을 수상하고 CIA의 분석가 양성 고급과정(Advanced Analyst Program)을 마쳤다. 6개월간 FBI에 파견되어 테러전담기동대와 협력하기도 했다.

NON- FICTION

제목 : MODERN MONOPOLIES

가제 : 현대판 독점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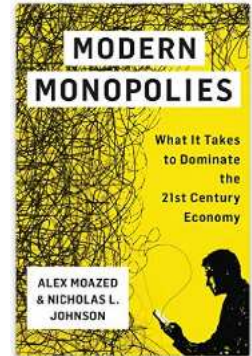
저자 : Alexa Moazed, Nicholas L. Johnson

출판사: St. Martin's Press

발행일: 2016년 7월 13일

분량 : 256 페이지

장르 : 전자상거래



- * **“플랫폼 중심 경제에서 성공할 수 있는 공식을 영리하게 제시한다.” - 포레스터 리서치(Forrester Research) CEO 조지 F. 콜로니**
- * **“현대의 플랫폼 업체들이 이룩한 혁신이 상당 부분 아웃소싱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책.” - 「파이낸셜 타임스」**

구글, 스냅챗, 틸더, 아마존, 우버는 시장 점유율이 급증하는 추세라는 점 외에도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 바로 ‘플랫폼’ 사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이다. 이미 전 세계인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은 엄청난 수익을 거둬들이는 업계의 최강자로 조용히 자리 잡았다. 플랫폼이란 반드시 상호의존이 필요한 두 개 이상의 주체 사이에서 소통과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한다. 즉 원가를 만들어내는 대신 필요한 사람들끼리 연결시켜주는 것이 플랫폼의 역할이다. 인터넷은 이미 이러한 플랫폼의 영향에 압도된 상태다. 인터넷 상의 모든 웹 사이트를 통틀어 사이트 방문율의 무려 25 퍼센트 가량을 페이스북이 차지하고, 구글은 2013년에만 인터넷 트래픽의 40 퍼센트 가까이를 차지했다. 미국에서 트래픽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10개의 사이트는 전 세계적으로 명성이 자자하고, 전 세계의 사이트를 트래픽 발생량에 따라 순위를 매겼을 때 1위부터 8위에 해당하는 사이트는 중국이 차지한다.

컴퓨터로 하던 작업을 모바일 기기가 대신하고 웹과 접속하는 지점이 광범위하게 편재된 현대 사회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대대적으로 바꿔놓았다. 디지털 기술과 물리적 세상이 하나로 융합되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구분하던 경계마저 모호해졌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등장한 플랫폼 산업은 이미 거대한 공룡이 되어 이제 그 영향력을 디지털 세상뿐만 아니라 경제계 전반에서 발휘하고 있다. 두 저자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경제계의 급진적인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현재까지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명확히 설명하고 그것이 오늘날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과 조직의 관리자, 사업체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분석한다. 더불어 이 새로운 시대에 성공적인 수익을 거두려면 어떤 방향

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알려준다.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며 첫 번째 부분인 1장부터 4장까지는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 무엇이고 어떻게 오늘날 경제계 전체를 뒤흔들 수 있었는지 설명한다. 이어지는 5장부터 8장까지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소개하고, 두 저자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업체를 운영하면서 터득한 이 현대판 독점 사업의 필수적인 프레임워크와 교훈을 설명한다.

현대 산업계의 흐름을 적시에 짚어내고 분석한 유익한 정보서다.

<목차>

머리말. 지금 플랫폼은 뜨겁다

1. 플랫폼이 세상을 집어삼키다
2. 하이에크 vs. 기계: 20세기에 관한 우리의 생각이 전부 다 틀린 이유
3. 최저수익이 '0'인 회사
4. 현대판 독점기업: 플랫폼 자본주의와 승자 독점 경제
5. 수십억 달러 규모의 회사를 설계하는 법: 틴더(Tinder)의 성공 사례로 분석한 '중심 거래'의 역할
6. 보이는 손: 플랫폼의 네 가지 기능
7. 네트워크에 맡겨라
8. 플랫폼이 실패하는 원인, 그 사태를 피하는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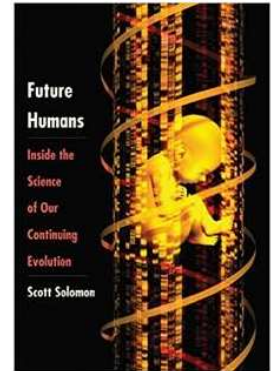
결론. 이제 다음 큰 건은 어떻게 찾아야 할까

<저자 소개>

알렉스 모아지드(Alex Moazed)는 밥슨 대학교를 졸업하고 2009년에 애플리코(APpplico)라는 회사를 창립해 현재까지 CEO를 맡고 있다. 모바일 기술과 플랫폼 혁신에 관한 강연을 이어왔다.

니콜라스 L. 존슨(Nicholas L. Johnson)은 애플리코의 초대 CEO로 현재는 플랫폼 부문 총괄 책임을 맡고 있다. 모바일과 플랫폼 기술 전문가로 활동 중이다. 여섯 명의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가 활동하는 경제연구소인 Institute for New Economic Thinking에서 에디터로 수년간 근무했다.

제목 : FUTURE HUMAN
가제 : 미래의 인류
저자 : Scott Solomon
출판사: Yale University Press
발행일: 2016년 10월 25일
분량 : 240 페이지
장르 : 과학(생물학)



- * “현 시대에 이루어지는 진화의 자연선택을 분석하고 그것이 어떤 미래로 이어질 것인지 설명하는 매력적인 책” – 『Parasite Rex』, 『Evolution: Making Sense of Life』의 저자 칼 짐머
- * “인류가 진화해온 과거와 현재의 모습, 앞으로의 진화 방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설명한다. 논란이 되는 수많은 문제들을 엄격히 요약하여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 책이다.” – 캘리포니아 대학교, 크리스토퍼 월스

인간이 흔히 침팬지의 모습을 떠올리는 유인원에서 진화한 동물이라는 견해는 대체로 과학계의 공통된 생각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지금 현재도 인간의 진화 과정은 진행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극명히 엇갈린다. 19세기에 등장한 우생학은 이 의문에 대한 한 가지 극단적인 주장이라 할 수 있다. 진화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니 인간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우생학의 기본 원칙은 인종차별을 비롯한 각종 차별의 바탕이 되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지만 2차 대전 전까지만 해도 유수의 과학자들이 이 의견에 동의했다. 우생학의 영향력이 가라 앉은 뒤에도 저명한 생물학자들 중 일부가 진화는 계속 진행 중이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그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이후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이제 자연선택이 인간에게 주는 영향은 끝이 났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등장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이 상반되는 의문을 풀기 위해 지난 수십 년 동안 고인류학과 분자유전학, 미생물학, 진화심리학, 의학, 인구통계학, 진화생물학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해답과 근거를 연구했다. 진화생물학자인 저자는 이 무수한 연구 결과와 관련 자료를 분석한 끝에, 인류의 진화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잠시도 중단된 적이 없으며 현대에 들어 지난 역사와는 다른, 새로운 진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이 책에서 설명한다. 이는 곧 인류의 미래가 훨씬 더 흥미롭게 전개될 것이며 과거 어느 때보다 예측이 어려워질 것임을 의미한다. 왜 진화의 양상이 현대에 들어 크게 바뀌었는지, 이 대대적인 변화가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저자는 다양한 근거와 자료를 제시하며 상세히 알려준다.

현대를 사는 인류는 옛 조상들과는 판이하게 다른 삶을 살고 있다. 수명은 훨씬 길어지고, 식생활도 전혀 다르고 세계 어디든 여행할 수 있다. 또 인공적으로 만든 의약품으로 질병을 관리하고 피임약으로 생식기능도 조절한다. 저자는 인류가 지금까지 밟아온 진화의 단계를 소개하고 현대의 이 같은 변화가 그 과정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발표된 무수한 연구결과와 현대 사회의 특징을 접목시켜 앞으로 진화가 어디로 나

아갈지 예측한다. 온라인으로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 데이트하는 문화, 제왕절개, 에이즈나 에볼라 바이러스와 같은 질병의 대대적인 확산 등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현 시대의 문화와 양상이 거시적인 차원에서 인간의 진화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들여다볼 수 있다. 인간의 생물학적 특성과 역사에 대해 인간 자신이 그 어느 때보다 잘 아는 세상, 기술과 의학, 교통수단의 엄청난 발전이 모두 진화를 만드는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찰한 흥미롭고 참신한 과학서다.

<목차>

머리말

1. 유전체와 세균
2. 빅데이터
3. 변화하는 세상
4. 성
5. 작은 파트너들
6. 지평선 너머에

맺음말

<저자 소개>

스캇 솔로몬(Scott Solomon)은 진화 생물학자이자 과학 저술가이다. 라이스 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로 생태학, 진화생물학, 과학적인 주제의 커뮤니케이션을 가르치고 있다.

제목 : THE COURAGE OF HOPELESSNESS

가제 : 절망을 인정하는 용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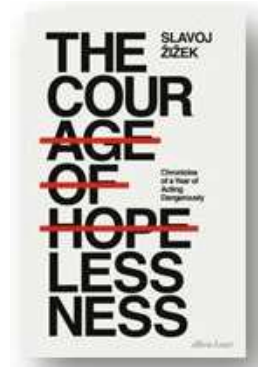
저자 : Slavoj Žižek

출판사: Allen Lane

발행일: 2017년 5월 4일

분량 : 160 페이지

장르 : 철학



- * 인문학, 사회과학,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를 섭렵한 문제적 철학자, 슬라보예 지젝이 이야기하는 인류의 희망 없는 미래, 그리고 그 난관을 뚫기 위한 전략
- * 현대사회의 이데올로기와 정치적, 경제적 다름이 만들어낸 어두운 전망과 급진적 변화의 시급성, 그리고 변화의 씨앗이 될 수 있는 필수 요소에 관한 고찰

영화 <브이 포 벤데타>의 마지막 장면에서 수천 명의 런던 시민들은 아무런 무기도 들지 않고 가이 포크스의 가면을 똑같이 쓴 채 국회의사당으로 행진한다. 의사당을 지키던 군대는 민중을 그대로 들여보내고, 사람들은 브이의 정체를 밝히려는 런던 경시청의 총수 핀치에게 “우리 모두가 브이다”라고 대답한다. 민중의 승리가 감동과 울림을 주는 이 장면에 대해, 저자는 한 가지 의문을 던진다. 승리를 거머쥔 바로 다음, 민중의 일상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 고무적인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뜨거운 목소리가 성과를 거둔 다음, 시민들의 삶은 바라던 개혁을 완성했을까? 저자는 절대 그렇지 않았으리라 단언한다. 제국주의 타도를 외치던 프랑스의 극좌파 게릴라 조직 악시옹 디렉트나 마스주의 혁명을 주장하던 독일의 좌파단체 바더-마인호프의 사례만 보아도, 헤어날 수 없는 고난에 찌는 민중을 크게 일깨워서 행동하게 만드는 건 극단적인 방식으로 현 체제를 물갈이해야 한다는 광기 어린 목소리를 키울 뿐이다.

저자는 시민이 봉기하고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중한 씨앗이 될 수 있지만, 민중의 소망과 그 열망이 엉뚱한 곳으로 새어나가는 일이 역사적으로 다반사였고, 이는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발생시켜 사회의 변화와 발전이 아닌 파괴와 역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해결되지 않은 무수한 문제들 속에서도 최악의 상황을 진단했다는 분석조차 결론적으로는 ‘그래도 그리 심하게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내어 놓는 시대, 터널 끝에는 빛이 나오리라 무조건 확신하려는 이 시대적 분위기는 결코 인류가 처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그리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인간의 눈에 비친 터널 끝 빛 줄기가 실은 이쪽을 향해 내달리는 기차의 헤드라이트라는 사실을, 즉 현재 우리가 위험천만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오롯이 인정할 때만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하다고 꼬집는다.

한 대륙에서 다른 대륙으로 거대한 인구가 생존의 터전을 옮기는 흐름, 지정학적 긴장의 고조, 테러의 위협, 우익이 선택한 포퓰리즘의 폭발적인 위세, 전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급진적인

정치와 같은 현 시대의 모든 특징은 세계 자본주의가 교착된 상태를 극명히 보여주는 예시이다. 저자는 이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에서도 진정한 변화가 가능한지 진단하고,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반드시 답을 찾아야 할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고찰한다. 자본주의가 이토록 광범위한 위세를 갖게 된 것은 인간의 타고난 특징 때문인가? 오늘날의 자본주의에는 지금과 같은 똑같은 자본주의의 무한한 재생을 막을 수 있는 제동장치가 존재하는가? 사회주의의 실패, 그리고 급격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포퓰리즘에 맞서 희망인 줄 알았던 거대한 열차가 우리 코 앞에 들이닥치기 전에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 저자는 이러한 의문을 제기하며 위태로운 우리의 현 주소를 냉정히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

<목차>

머리말. 브이 포 벤데타, 제 2부

1. 세계 자본주의의 성쇠

1.1 세계 자본주의와 그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

1.2 리시자, 사건의 그림자

1.3 종교와 그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

2. 이데올로기적 그림자의 장

2.1 “테러리스트의 위협”에 대하여

2.2 성은 정치적인 요소가 아니다(맞다)

2.3 포퓰리즘의 유혹

3. 맺음말. 다중심 세상에서 세계적 정치인이 느끼는 외로움

<저자 소개>

슬라보예 지젝(Slavoj Žižek)은 철학자, 정신분석학자, 정치 운동가이다. 뉴욕 대학교, 미네소타 대학교, 시카고 대학교, 런던 대학 등 다양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정치이론, 영화이론, 이론 정신분석학 분야의 석학으로 인정 받고 있으며 인문학, 사회과학, 예술문화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연구논문과 저서를 발표해 왔다. 최근 저서인 『TROUBLE IN PARADISE(국내 번역서: 자본주의에 희망은 있는가)』는 브라질, 포르투갈, 스페인, 헝가리, 그리스, 터키, 독일 등 11개국에서 출간됐다.

제목: HOW TO BREATHE

가제: 숨쉬기의 모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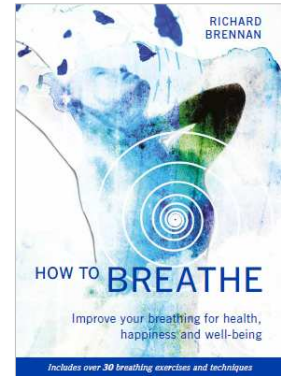
저자: Richard Brennan

출판사: Connections Book Publishing

발행일: 2016년 6월 1일

분량: 144 페이지

장르: 건강



- * 앉기, 서기, 걷기, 호흡하기 등 기본적인 자세와 움직임으로 고질적인 통증과 몸의 긴장을 푸는 기술, 알렉산더 테크닉의 대가가 알려주는 호흡의 중요성과 올바른 호흡법
- *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드는 호흡의 모든 것

요즘 무슨 운동하냐고 누가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우스개 소리로 ‘숨쉬기 운동’을 한다고 대답하곤 한다. 이처럼 가장 손쉬운 일로 여기는 호흡은 우리가 굳이 애를 쓰거나 신경 쓰지 않아도 계속되고 너무 당연한 일이라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사실 호흡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필수 기능 외에도 건강에 무수히 많은 영향을 준다. 호흡이라고 해봐야 그냥 숨을 들이쉬고 다시 내쉬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알렉산더 테크닉’으로 알려진 ‘내 몸 제대로 쓰는 기술’의 대가인 저자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며 이 책에서 그 이유를 상세히 전한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공기는 몸 속에 조용히 들어온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내뿜는 그 순간까지, 쉼 없이 우리 몸에 들어오고 나가는 일이 반복된다. 아기가 태어나면 의사와 산모를 비롯한 가족 모두가 맨 처음 집중하는 것이 아이가 ‘숨을 쉬는가’이고, 그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아기의 미래는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다. 살면서 너무 놀라 숨이 막히거나, 음식을 잘못 삼켜서 숨이 막혀본 경험을 해본 사람이라면 단시간에 그 영향이 얼마나 크게 나타나는지 느낄 수 있다. 산소가 원활히 공급되지 않는 순간이 찾아오면 정신이 금세 아득해지고 순식간에 목숨이 왔다갔다하는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듯 평소에는 대부분 자신이 숨을 쉬고 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자신의 호흡을 인지하고, 호흡 상태를 점검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만으로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저자는 호흡을 느끼는 것이 곧 자신의 존재를 인지하는 것이며 이는 자연스레 삶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고 보다 의미 있는 삶, 더 조화롭고 즐거운 삶을 만들고 싶다는 의지로 이어진다고 이야기한다. 호흡을 의식하면서 인생에 대한 통제권을 더 확실히 쥌 수 있는 것이다. 1980년대부터 20년이 훌쩍 넘는 세월 동안 올바른 호흡법과 신체 자세를 중시하는 알렉산더 테크닉을 배우고 가르치며 이 단순한 기술이 근육의 무의식적인 긴장을 해소하는 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목격해온 저자는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인지하는 첫걸음인 호흡의 모든 것을 이 책에서 설명한다.

자세가 나쁘고 스트레스에 짓눌려 근육이 딱딱하게 뭉쳐진 상태에서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더

라도 호흡까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한다. 저자는 자연스러운 호흡의 리듬을 찾는 것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을 바꾸는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호흡 기술을 통해 잃어버린 리듬을 되찾는 방법을 알려준다.

하루에 2만 번 넘게 이루어지는 호흡이 잘못되면 신체 건강은 물론 정서적, 정신적으로도 무수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간단한 연습과 실천을 통해 이러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건강한 호흡 습관을 들이는 방법을 알려주는 유익한 건강서다.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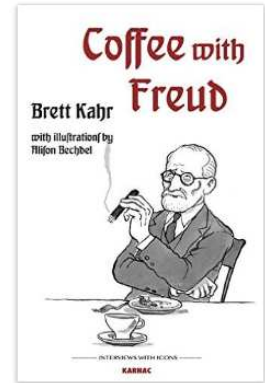
머리말

- 1장. 호흡의 중요성
- 2장. 호흡의 작용
- 3장. 호흡하는 인간
- 4장. 습관과 오해
- 5장. 호흡의 문제
- 6장. 자연스러운 호흡의 원리
- 7장. 호흡 개선의 첫 단계
- 8장. 목소리와 호흡
- 9장. 움직이면서 호흡하기
- 10장. 자세를 바꾸면 건강하고 행복해진다

<저자 소개>

리처드 브레넌(Richard Brennan)은 아일랜드에서 알렉산더 테크닉을 가르칠 강사를 양성하는 'Alexander Teacher Training College'의 대표를 맡고 있다. 유럽과 미국 전역에서 25년 넘게 강의를 이어 왔다.

제목 : COFFEE WITH FREUD
가제 : 카페에서 만난 프로이트
저자 : Brett Kahr, Alison Bechdel
출판사: Karnac Books
발행일: 2017년 3월 31일
분량 : 336 페이지
장르 : 전기/심리학



*** 역사적 인물을 현대로 소환하여 인터뷰하는 독특한 구성**

*** 프로이트가 단골 카페에서 허심탄회하게 들려주는 연구인생, 정신분석학, 삶의 중요한 순간들**

빈에는 유서 깊은 카페가 곳곳에 남아 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오스트리아에서 연구하고 예술활동을 벌이던 무수한 명사들이 오후가 되면 카페 센트랄이며 고급스러운 페스트리로 유명한 카페 데멜, 카페 하벨카 등을 찾아와 크림이 올라간 아인슈페너 한 잔을 앞에 놓고 시를 쓰고, 악상을 떠올리고, 논문을 다듬었다. 런던에서 정신의학자로 활동 중인 저자는 이 멋들어진 카페 중 한 곳에서 정신분석학의 아버지, 프로이트와 인터뷰를 한다. 오직 이 인터뷰를 위해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 넘어 무덤에서 이 대가가 소환됐다는 기발하고 독특한 발상을 토대로, 저자는 프로이트가 살아생전 단골로 드나들던 카페 란트만에서 그와 마주 앉는다. 심지어 프로이트가 활동하던 시절 카페를 찾을 때마다 시종을 들고 개인적으로도 가깝게 지낸 이 카페의 매니저까지 무덤에서 함께 소환되어 인터뷰 내내 저자와 프로이트를 돕는다. 화자는 세 명이지만 실제로 살아 있는 사람은 저자 한 사람뿐인 이 특별한 인터뷰에서 프로이트는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삶과 정신분석학 분야에서 이룩한 업적들, 환자를 치료하면서 얻은 감회를 편안하게 이야기한다.

1938년에 사망한 프로이트는 그로부터 8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 자신의 연구가 전 세계적인 관심을 얻게 될 것을 예상했을까? 딸 안나도 뒤를 이어 아동 심리분석 분야에서 뛰어난 석학으로 인정받고 자신처럼 80세를 훌쩍 넘겨서까지 활발히 연구하리라고 생각했을까? 저자의 상상으로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다. 카페 란트만에 들어선 프로이트는 영국에서 숨을 거둔 자신이 빈까지 먼 길을 와야 했다는 사실에 툭툭대면서도 되살아난 카페 매니저를 보며 기뻐하고, 저자가 자신을 ‘전설적 인물’이라 칭하자 기겁을 한다. 그리고 자신의 사망일자나 암을 앓다가 숨질 당시의 상황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놀란다. 대화 치료라는 새로운 심리상담 기법을 도입한 것은 맞지만 셰익스피어나 괴테 같은 진짜 전설적 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이처럼 시간을 거스르느라 어안이 병병해진 프로이트가 당황하는 모습을 저자는 생생하게 묘사하고, 당혹스러워하면서도 할 말은 줄줄 쏟아내는 프로이트의 반응이 흥미롭다. 프로이트를 담았던 일러스트는 우리가 역사적 자료에서 본 사진을 친근하게 구현한 모습으로 간간히 등장하며 읽는 재미를 더한다.

왜 자신이 이런 인터뷰를 할 만한 대상이라고 생각하는지 의아해하던 프로이트는 저자의 끈질

긴 설득과 그의 사후 이루어진 정신분석학의 발전, 그의 연구가 남긴 영향을 듣고 결국 성심껏 답변하기로 결심한다. 두 사람은 열두 잔의 차를 함께하며 프로이트가 맨 처음 심리분석학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와 정신질환의 증상 형성, 성 심리에 관한 이론이 구축된 과정을 상세히 이야기한다. 이와 함께 프로이트는 자신에게 등을 돌린 칼 융에 대한 심정을 모호하게나마 털어놓고, 나치를 피해 달아났던 기억을 떠올리며 그 긴박했던 시절의 일들을 전한다.

저자가 이끌어내는 편안한 대화를 통해 프로이트가 남긴 우수한 글과 연구결과, 그 역사적 가치를 두루 접할 수 있는 참신한 전기이자 정신분석학의 역사서로 관련 분야의 학생과 연구자는 물론 일반인도 흥미롭게 읽을 만한 책이다.

<목차>

머리말

인터뷰

- 컵 1. 지그문트 프로이트 교수의 부활
- 컵 2. 나렌탐(*빈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을 넘어서: 정신의학 비평
- 컵 3. 모라비아에서 보낸 어린시절
- 컵 4. 번역가 프로이트
- 컵 5. 트라부코 시가를 피우다
- 컵 6. 프라우 벤베니스티의 소파에서 폴란드산 술 한잔
- 컵 7. 골동품에 대한 애착
- 컵 8. 다목장어, 뱀장어, 그리고 약간의 코카인
- 컵 9. 프로이트의 창의력
- 컵 10. 김을 가라앉히는 법: 히스테리 치료법
- 컵 11. 황태자의 자살, 살해당한 황후
- 컵 12. 꿈의 문턱 앞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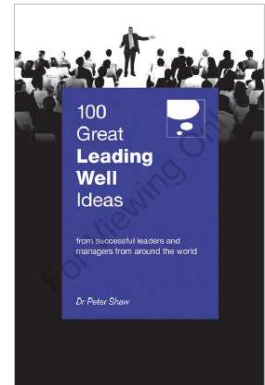
맺음말. 프로이트를 만나기까지

<저자 소개>

브렛 카(Brett Kahr)는 런던 아동정신건강센터에 심리치료, 정신건강치료 부문 선임 임상연구자로 소속되어 있다. 영국 부부 심리치료사 협회 대표를 맡고 있으며 런던 로햄턴 대학교 명예교수이기도 하다.

앨리슨 벡델(Alison Bechdel)은 만화가로 맥아더 지니어스 어워드(MacArthur 'Genius Award')를 수상한 경력이 있다. 일러스트로 채운 그래픽 회고록 『Fun Home』의 저자로 해당 저서는 뮤지컬로 만들어져 토니상의 영예를 안았다.

제목 : 100 GREAT LEADING WELL IDEAS
가제 : 좋은 리더를 만드는 100가지 아이디어
저자 : Peter Shaw
출판사: Marshall Cavendish Trade
발행일: -
분량 : 232 페이지
장르 : 경영/자기계발



- * 좋은 리더가 갖춰야 할 핵심을 6하 원칙에 네 가지를 더한 **10**가지 기준, 총 **100**단계로 세밀하게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
- * 다양한 그룹, 대상, 기관의 생생한 사례와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 팁

리더의 자리에 오르면 여러 가지 고민에 빠진다. 조직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고 업무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리더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어느 부분을 개선하고 보충하고 발전시켜야 하는지 막막하게 마련이다. 좋은 리더, 인정 받는 리더가 되는 길은 그래서 멀고 험난하며 오랜 시간을 요한다. 그리고 훌륭한 리더가 된 후에도 끊임없는 자기 반성이 필요하다. 오랫동안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리더십 트레이닝을 이끌어온 저자는 조직의 규모와 상관없이 리더라면 누구나 느낄 법한 이 난감한 상황을 현실적으로 해결해줄 방법을 이 책에서 소개한다. 어떤 분야의 일을 하든, 구체적인 직무가 무엇이든, 어느 나라에서 활동하든 상관 없이 '리더'라는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유용한 팁을 100가지로 정리하고 이를 '왜, 무엇을, 누가, 어떻게, 언제, 어디서'의 6하 원칙과 선택, 과거의 문제, 미래의 방향, 꼭 알아야 하는 것 등 4가지 기준을 더해 총 10가지 기준으로 분류하여 제시한다. 여러 사람을 지도하고, 관리하고 동기를 부여하고 상담을 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한 번 깊이 생각해볼 만한 '아이디어'를 던지고, 그것을 실제 업무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연이어 소개한다.

저자가 리더십 개발에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은 세 가지다. 한정된 시간은 철저히 우선순위에 따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그 첫 번째다. 모든 리더는 위아래에서 주어진 임무와 해내야 할 일들이 켜켜이 쌓일 수밖에 없고, 그럴수록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자는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없는 일, 오직 리더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파악하여 구분하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리더에게 필요한 두 번째 요소는 리더 자신이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보다 구성원들의 평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자신의 역량과 리더로서의 기능을 얼마나 잘 해내고 있는지는 구성원들의 견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지시는 명확히 내리고, 업무를 위임할 때 올바른 방식을 따르고, 멘토이자 가이드의 역할을 해내고, 다음 리더가 될 사람에게 적절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리더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세 번째는 피드백이다. 리더

의 기능이 적절히 발휘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리드를 받는 구성원들의 의견이다. 저자는 구성원의 의견을 구하고 그 의견을 실질적인 변화와 개선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리더들이 보통 다른 리더들의 평가를 보고 자신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보다 자신이 데리고 일하는 사람들이 내놓는 의견이 더 정확하다고 저자는 꼬집는다.

내용이 세밀하게 분류되어 꼭 필요한 부분을 골라서 참고할 수 있고, 다양한 실례를 통해 생각지 못했던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유익한 정보서다.

<목차>

머리말

A. 왜

1. 왜 달라지고 싶은가
2. 우수한 리더가 되기 위한 계획
3. 신념을 다질 것 (이하 10장까지)

B. 무엇

11. 깨어나라, 그리고 꿈꿔라
12. 희망을 찾아라
13. 꾸준히 갈고 닦고 예행연습하라 (이하 20장까지)

C. 누구

21. 나만의 챔피언 만들기
22.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 것
23. 함께 하라 (이하 30장까지)

D. 어떻게

31. 직접 쫓아가라
32. 통제하는 법을 배워라
33. 리더는 조정자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이하 40장)

E. 언제

41. 기회를 잡아라
42. 귀중한 성과가 만들어지는 순간
43. 개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하 50장)

(이하 생략, 총 10절, 100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피터 쇼(Peter Shaw)는 리더십 컨설팅 업체 프레스타 파트너스(Praesta Partners)의 공동 창립자로 자신감 강화를 중심으로 한 개인, 단체 교육을 실시해 왔다. 뉴캐슬 경영대학원 초빙교수를 맡고 있으며 체스터 대학교와 세인트 존스 칼리지, 더럼 대학교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